

광주시·전남도 '하늘길 싸움' 충돌

상생 실종... 소모적 논란 장기화 조짐

국토부, 여론조사 추진 불씨 지역이기주의 갈등 부를 듯

광주공항 국내선 이전을 둘러싸고 광주시와 전남도가 대립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를 지켜보는 지역주민들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미묘한 시점에서 양 공항의 노선 갈등이 다시 불거지는 바람에 시도간 타협의 여지가 줄어들 것 같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언급을 자제해온 박광태 광주시장이 16일 "국내선 무안공항 이전은 안된다"라는 내용의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 주목된다.

박 시장은 지난 2007년 무안공항 개항을 앞둔 시점에 광주공항의 국내·국제선 무안공항 이전 문제로 광주·전남 지역간 갈등이 촉발되자 박준영 전남지사와 국제선 이전을 합의한 뒤 그동안 공항 관련 발언을 극도로 삼가왔다.

그러나 이날 박 시장의 발언은 정부에 광주공항 국내선 이전 문제를 거듭 촉구하고 있는 전남도의 행보를 겨냥한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이는 광주 지역 관광업계 종사자들이 지난 4일 무안공항으로 이전했던 국제선을 재유치 하기 위해 유치위원회를 발족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사안이기도 하다.

실제 광주시로서는 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를 앞두고 있어 어느 때보다 항공 인프라가 필요한 데다 주민편의, 지역 경제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현실적으로는 광주·무안 공항 가운데 한 곳으로 역량을 집중해 명실상부하게 국내·국제선을 운영해야 지역이 상생발전할 수 있다는 당위성이 엄존하지만,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민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는 현실적인 측면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박 시장의 이날 발언은 그동안 광주·무안공항 문제를 시·도간 합의를 결정할 것을 권고했던 정부가 돌연 시민 여론조사를 들고 나오게 따라 여론 환기 차원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해석도 있다.

이와 관련, 전남도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차분하게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공항 국내선의 무안공항 이전의 당위성을 설명했기 때문에 굳이 대응을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공항 및 노



무안공항

선문제는 국토해양부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국토부 의견을 물어본 뒤 전남도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가 의외로 차분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자칫 광주시와 전면전을 하게 될 경우 얻는 것보다 잃을 게 많을 것이라는 계산 때문으로 보인다.

굳이 전면에 나서지 않아도 전남도는 충분한 '명분'이 있다는 자체 판단을 하고 있다. 정부가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무안공항을 건설한 것은 광주·목포 공항의 기능 이전을 전제로 하고,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 광주~무안공항 간 고속도로까지 건설할 정도의 '국책사업'이라는 점에서도. 따라서 도가 직접 나서 상황을 악화시키기보다는 정부가 나서서 두 공항 문제를 풀어주길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전남도는 광주시가 지난해 5월28일 광주~무안공항 간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국내선 이전을 검토하겠다고

밝혀놓고 뒤늦게 KTX 완전 개통 이후로 미루겠다고 해놓고 이를 반복하고 있는 점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한국공항공사에 통해 전문여론조사 기관을 동원해 19일부터 25일까지 1주일간 광주 거주 700명(20세~60세)과 시·구·대학·여행사, 상공회의소, 항공사, 광주발전연구원 등 전문가 70명을 대상으로 광주공항과 무안공항 운영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예정이다.

여론조사 내용에는 광주공항에 있는 국내선을 무안공항으로 이전하는 문제와 광주공항의 국제선 재취항 여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공항공사는 이를 위해 (주)한국리서치와 계약을 맺었으며, 조사 결과는 30일께 나올 예정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공항

무안공항 '에어 택시' 이달말 취항 21인승 경비행기 3개 노선 운항

무안국제공항에 21인승 경비행기 '에어 택시'(Air Taxi)의 운항이 이달 말에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서울항공청은 무안국제공항에서 김포·제주·김해공항 등 3개 노선을 오가는 에어 택시 취항을 위해

노선 허가를 추진하고 있는 에이스항공(주)에 대한 운항허가가 19일께 나올 예정이다. 서울항공청은 운항허가 발급에 앞서 지난해 무안공항과 제주공항 등의 실사를 통해 에어 택시 안전성 등에 대해 검증작업을 벌였다.

이에 따라 에이스항공은 전남도와와의 협약에 따라 이달 내에 ▲무안~김포 ▲무안~제주 ▲무안~김해 등 3개 노선에 대해 정식 취항할 예정이며, 취항 전에는 관광업계를 상대로 시범 운항도 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운항허가만 나오면 곧

바로 취항이 가능하다"며 "서울항공청은 지난해 실사를 벌였으며, 에이스항공도 취항을 위해 아시아나 항공과 티켓팅·승객버스 등 편의시설 사용 등에 대해 업무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와 에이스항공은 지난달 9일 항공법이 개정돼 소형비행기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21인승 항공기 2대를 무안공항에 투입해 공항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신도시는 문화·관광·스포츠 타운"

박광태 시장 "주택과는 전혀 상관 없다"

광주시가 돛구장 신축과 함께 조성을 추진할 주변 신도시가 가칭 '스포츠 레저 관광 문화타운'으로 조성된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16일 낮 기자회견을 갖고 "신도시를 공예문화산업 클러스터, 세계음식민속촌, 문화산업단지, 물놀이공원 등 각종 문화 스포츠·위락시설이 들어서는 스포츠 레저 관광 문화타운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돛구장 주변 신도시는 주택과 전혀 상관이 없다"며 "포스코 측에서 1천~2천 가구 건립을 제안할 수도 있으나, 지금은 주택과 관련된 사안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 조성될 신도시는 현재 개발

중인 어등산 관광단지과 연계돼 광주의 관광·스포츠인프라를 크게 확충하게 될 것이다"며 "현재 돛구장은 물론 신도심 건설 계획이 밀그림 단계이기 때문에 연말에 시행사측인 포스코가 제안서를 제출하면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토론회를 갖겠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돛구장은 컨벤션센터, 경기장, 공연장 등으로 활용돼 운영비 등 수입을 창출하게 될 것이며, 시행사측이 부대사업을 크게 벌여 충당하는 개념은 아니다"며 "돛구장 논란이 가중되면 대구보다 먼저 시행하려는 사업계획을 미루고 대구부터 공사를 진행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도청 별관 정밀안전진단·지반조사 착수

옛 전남도청 별관의 보존 방법을 결정하는 중요 변수가 될 별관 건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지반조사'가 본격 착수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지난달 말 ㈜한국구조안전기술원기술사사무소와 용역계약을 체결, 오는 12월31일까지 옛 전남도청 별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지반조사'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50일 간 실시될 이번 조사에서는 별관 건물의 노후 정도 점검과 건물 비파괴검사, 지질조사 등 안전진단이 이뤄진다.

추진단은 조사 결과와 지역 전문가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건물의 안전등급지정과 보수, 보강방안 등을 결정하며 향후 별관 부분보존 방법을 결정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별관 보존 공사에 착공하는 데는 1년 여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추진단 관계자는 "별관 부분보존을 위한 공사는 기본·실시설계와 종합계획 변경, 관계기관 협의의 등 1년 여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착수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여수,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灣

22개국 회원 '灣 클럽' 가입...박람회 유치 도움

여수시가 지자체로서는 국내 최초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灣) 클럽'에 가입했다.

16일 여수시에 따르면 최근 스페인 산탄데르에서 열린 만 클럽 이사회 집행위원들의 투표 결과 여수시를 포함해 도미니카 공화국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 클럽'에 신규로 가입했다.

'만 클럽'은 지구상의 아름다운 해안에 대한 성찰과 교류활동 등을 위해 지난 1997년 3월 설립됐으며 프랑스의 반(Vannes)에 사무국을 두고 있고, 회원은 22개국(29개만)으로 구성돼 있다.

여수시가 만클럽에 가입하게 된 것은 만클럽 측에서 세계박람회기구(BIE) 사무국을 통해 2012여수박람회를 전세계에 알리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여수시

와 여수박람회조직위 등에 가입을 권유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지난 5월 만클럽 가입을 신청했고 만클럽 대표단 3명이 지난달 23일부터 26일까지 여수 현지를 방문, 답사를 거쳐 이번 이사회의 최종 투표로 확정됐다.

여수시는 이번 만클럽 가입이 2012여수박람회의 국제적 인지도를 크게 높이고 해외 양분야 민간단체를 비롯 유럽국가 등과의 여수박람회 참가 관련 유치 교섭 등에 큰 힘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주요 만클럽 가입 국가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캐나다, 중국, 콜롬비아, 스페인, 미국, 프랑스, 인도, 아일랜드, 마다가스카르, 모로코, 멕시코, 필리핀, 포르투갈, 터키, 베트남 등이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A large advertisement for Jooyou Travel Agency (조이여행사) featuring flight deals to various destinations like Japan, Asia, and Europe. It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234-3222) and promotional prices for different routes.